

그림, 책을 만나다



'지식의 표정'의 헬레네 세르프백 작 '자화상'

책 표지 장식한 그림들 눈길

전병근의 '지식의 표정'
세르프백의 '자화상' 전면 채워

'월간 정어울' 시리즈
매달 한명, 12명의 작가와 협업

박준 산문집 영국 화가 루빈 그림
황현산 산문집은 독일 작가 작품



'월간 정어울-똑똑'의 안진의 작 '꽃의 시간'

'그림, 책을 만나다.'

몇년 사이 새로 출간되는 책들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책 표지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는 국내외 화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표지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때론 낯선 작가들의 작품도 있어 '발견의 즐거움'도 크다. 새롭게 눈에 들어온 작가의 작품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지난해 출판사 '마음산책'에서 펴낸 '지식의 표정'을 접했을 때 유독 표지가 강렬하게 다가왔다. 전병근의 '지식의 표정'은 유발 하라리 등 '읽고 생각하며 자신의 표정을 만든' 지식인 12명의 인터뷰 기사를 묶은 책으로 독특한 표정의 한 여자가 전면에서 등장하는 표지가 눈에 띈다. 핀란드 여류화가 헬레네 세르프백(1862~1946)의 작품 '자화상'으로 헬레네는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인상적인 '마리아' 등 여성과 아이가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화를 그려온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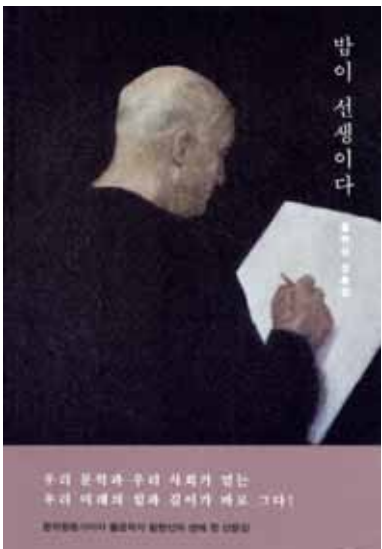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정어울과 출판사 '천년의 상상'이 새롭게 시작한 '월간 정어울'은 독특한 시리즈다. 잡지처럼 매달 하나의 의성어나 의태어를 선정해 출간하는 시리즈로 최근 발간된 1월호 '똑똑-수줍은 마음이 당신의 삶에 노크하는 소리', 2월호 '콜록콜록-누군가 조금은, 혹은 아주 많이 아파하는 소리'는 일상을 세심하게 포착한 정어울의 글로 다음호를 기대하게 만든다. 1월호는 초판 3000부가 모두 소진돼 재판에 들어갔다.

'월간 정어울'의 또 다른 특징은 매달 정 작가가 그 달의 '테마'와 한명의 화가를 선정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화가의 그림으로 표지를 제작하고, 대표작 10여편을 책 사이사이에 싣는다. 책 마지막에는 정 작가가 쓴 '작품론'도 담긴다. 정어울은 '똑똑'에서 "그 자체로 더없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취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개성 넘치는 화가들의 그림과 내 글을 나란히 놓았다"라고 말했다.

1월의 화가는 '꽃'을 주제로 작업하는 안진의 작가다. 강렬한 붉은 꽃이 인상적인 표지화를 비롯한 '꽃의 시간' 시리즈와 '빛의 정원'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운다고...'의 기드온 루빈 '무제'



'밤이 선생이다'의 팀 아이텔 '무제'



'콜록콜록' 남경민 '예술가의 작업실'

'콜록콜록'에서는 '예술가의 작업실'을 주제로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해온 남경민 작가의 그림을 만날 수 있으며 3월호 '까르륵까르륵'의 작가는 한국화가 최인선이다. 4월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서양화가들도 등장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천년의 상상' 홍보팀 편집자는 "화가와 협업을 통해 책을 만들기로 기획한 시리즈로 매달 정어울 작가가 그달의 테마와 맞는, 좋아하는 작가를 선정한다"며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과 감수성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리즈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시리즈는 앞으로 '와르르', '달그락달그락', '육신각산', '어슬렁어슬렁', '팔딱팔딱' 등 모두 12권으로 완간된다. 김민정 시인이 편집자로 참여하고 있는 '난다'의 책들도 화가들의 작품을 적극 표지로 활용한다.

베스트셀러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의 박준 시인이 펴낸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겠지만' 역시 표지 그림에 눈길을 머문다.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여자와 하모니카를 부는 남자가 등장하는 그림은 등장인물들의 얼굴이 모두 지워져 있어 많은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이스라엘 출신 영국 화가 기드온 루빈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인 커플을 그린 작품으로 루빈은 오는 9월 한국에서 첫 개인전도 앞두고 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문학평론가 황현산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 표지 역시 인상적이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뒷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독일 출신 작가 팀 아이텔의 '무제'다. 그는 지난해 학교재 갤러리에서 개인전도 진행했다. 황씨가 30년 동안 쓴 글을 모은 산문집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가 그대로 느껴지는 글과 더불어 표지 그림까지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민음사의 경정권 소설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는 국내 젊은 화가와의 협업으로 눈길을 끈다.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에는 서니니 작가의 '그녀'가, 김혜진 작가의 '달에 대하여'에는 안소현 작가의 '8.11.S.Z'가 표지로 쓰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추사 김정희 글씨 3점 보물 된다

문화재청 '침계' '대평고회' '차호호공' 지정 예고

조선 후기 최고의 서예가이자 금석학자였던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의 서예작품 3점이 보물로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중진)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추사의 서예 작품 중 '침계'〈사진〉을 포함한 3점을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사 김정희는 문인이자 정치가로 활동했으며 금석문(金石文·금속이나 돌 위에 새긴 문양 또는 글씨)의 가치를 재평가한 추사체를 창안했다.

'침계'는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이 펴낸 책 '추사명품'의 표지에 수록된 작품이다. 추사가 만년인 1851~1852년께 쓴 것으로 추정되며, '침계' 두 글자를 커다랗게 쓰고 왼쪽에 8행에 걸친 발문을 적었다. '침계'

는 김정희와 교류했던 문인 윤정현(1793~1874)의 호다.

추사가 세상을 뜬 1856년에 완성된 '대평고회'〈大烹高會〉는 중국 명나라 문인 오중잡의 '중추가연'〈中秋家宴〉이라는 시에서 유래했다. '대평두부고강채/고회부처아녀손'〈大烹豆腐高薑菜/高會夫妻兒女孫〉이라는 글로 "푸짐하게 차린 음식은 두부·오이·생강·나물이고, 성대한 연회는 부부·아들딸·손자라네"라는 뜻이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이상적 경지라는 의미를 소박한 필치로 표현했다.

또 다른 작품 '차호호공'〈巨呼好均〉은 "잠시 밝은 달을 불러 세 벗을 이루고, 좋아서 매화와 함께 한 산에 사네(巨呼明月成三友, 好共梅花住一山)"라는 문장을 예서로 쓴 대련 형식의 글씨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다큐 '피의 연대기' 오희정 PD 광주 온다

오늘 광주극장 관객과의 대화

'여성의 몸'과 '생리'에 관한 다큐멘터리 '피의 연대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오희정(사진) PD가 광주를 찾는다.



광주극장이 관객들의 열광적인 지지속 단체관람 열풍을 낳으며 연장 상영에 돌입한 본격 생리 탐구다큐 '피의 연대기'의 오희정 PD와 관객과의 대화를 마련한다. 21일 오후 7시20분 영화상영 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세진 광주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의 진행으로 시작한다. 영화 '피의 연대기'는 해외 취재와 방대

한 아카이브를 통해, 기나긴 생리의 역사를 탐구하고, 대안 생리용품을 모색하고, 세계적 변화의 바람을 대리 체험하게 해주는 작품으로 여성 관객에게 '공감'을, 남성 관객에게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다큐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문기자 ej6621@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교육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신희)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광주광역시 지원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국비직업훈련교육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담 취업설계사가 1:1로

취업지원 및 사후지원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30분에는 국비직업훈련 홍보와 참여자 모집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직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국비직업훈련교육은 아동급식 토달조리사, 도배기능사자격증반, 간호조무사취업실습과정, 보훈총무사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생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문의 062-511-0001~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017-2018 **겨울이야기**
신양파크호텔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